

Chapter 5. Culture Pick II

# 갤럭시로 보는 세상

##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mailto:mistyfriday@me.com)



## 기록하는 인간 그리고 스마트폰

한껏 움츠려 긴 겨울을 버틴 존재들이 사방에서 고개 들어 봄을 알린다. 매일 걷는 길이 하루가 다르게 푸른색으로 물들고 봄꽃들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붙잡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봄축제 소식으로 매일 시끌벅적하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말대로 인류가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즉 여행하는 인간이라면 봄은 그 본능이 활개 치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끊임없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현대 인류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운 색으로 치장한 꽃길, 봄의 언덕마다 길게 늘어선 인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알아둬야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특징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에서 보기 힘든 고유의 장치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늘어난 카메라의 숫자를 꼽을 수 있다. 몇 년 사이 스마트폰 후면의 렌즈 수가 많게는 3, 4개로 늘었고 크기와 부피도 증가했다.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진, 동영상이 눈에 띄게 다채롭고 선명해진다.



# 카메라 숫자가 늘어난 진짜 이유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은 디지털카메라의 줌 렌즈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됐다. 내부 렌즈 요소들이 움직여 프레임을 변경하는 줌 렌즈의 구조를 채용하기에 스마트폰의 두께는 충분치 않았다. 기존에도 촬영 화면 일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줌 기능을 제공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높아진 소비자의 수준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각기 다른 용도의 카메라들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를 필요에 따라 전환해 마치 줌 렌즈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갤럭시 노트 8을 통해 첫 선을 보였다.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구성은 초광각, 광각, 망원이다. 이를 기본으로 제품 특성에 따라 망원 카메라를 빼거나 장망원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한다. 5배 망원을 포함해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된 갤럭시 S25 울트라가 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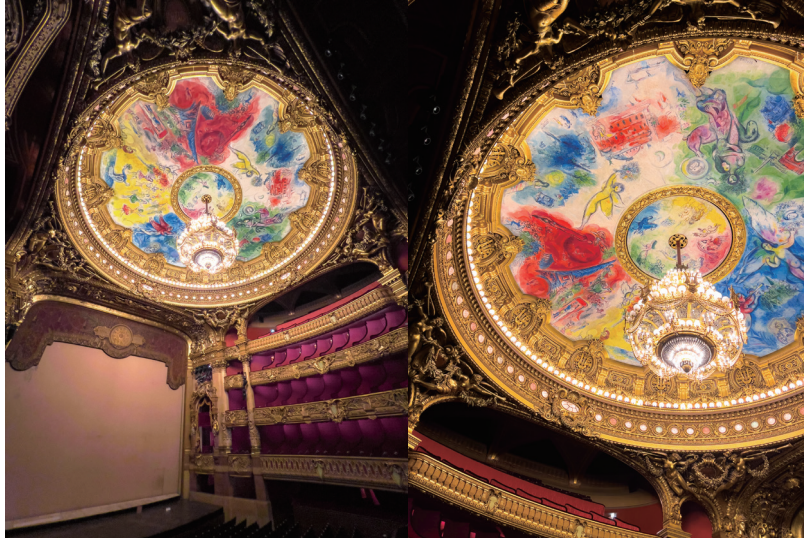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 가까이 또 멀리 멀티 카메라 제대로 활용하는 법

각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는 촬영되는 영역이다. 초광각 카메라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넓은 시야로 주로 광활한 풍경을 촬영할 때 사용된다. 망원 카메라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 보이거나 피사체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인물, 정물 사진처럼 주제를 확실히 돋보이게 하는 사진에 효과적이다. 광각 카메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대부분의 촬영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사용 예 (초광각/광각/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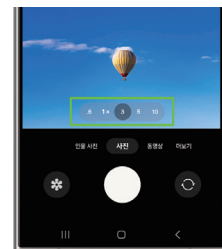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사용 예 (초광각/광각)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사용 예 (광각/망원)

카메라를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촬영화면 하단에 표시된 버튼을 터치하는 것이다. 0.5x 또는 0.6x으로 표시된 아이콘은 초광각 카메라, 1x는 광각 카메라, 3x 이상의 숫자는 망원 카메라를 의미한다. 이 중 한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하는 카메라가 동작하고 나머지 카메라는 비활성화된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기존 방식은 화질 손상이 동반된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확대할수록 흐릿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모델에 따라 100배 이상의 스페이스 줌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역시 확대한 이미지를 AI를 통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원본 화질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3배 또는 5배 망원 카메라를 직접 선택해 해당 카메라의 최고 화질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화면 하단 버튼은 각각의 카메라를 의미한다.



망원 카메라(3x, 좌)와 디지털 줌(우)의 화질 비교

많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같은 것으로 오해한다. 하나의 카메라에 여러 개의 렌즈를 바꿔 가며 촬영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탑재된 각 카메라는 독립된 별개의 카메라로 화질 및 성능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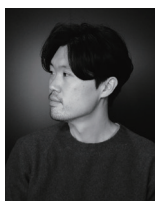
갤럭시 S25 울트라를 예로 들면 메인 카메라인 광각 카메라는 2억 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카메라들은 5000만 또는 1000만 화소로 다르다. 실제 촬영 결과물 역시 광각 카메라가 가장 좋고 빛이 부족한 실내/야간 촬영에서 이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때문에 초광각, 망원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광각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광각 카메라의 이미지 품질이 가장 좋다.

촬영 환경과 주제에 맞춰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은 스마트폰 촬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같은 풍경도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하면 극적인 효과가 배가되고 인물은 망원 카메라로 촬영할 때 가장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멀티 카메라를 마치 싱글 카메라처럼 사용했다면 이번 봄부터 초광각, 망원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보자. 분홍빛 흐드러진 벚꽃길에서는 초광각 카메라로 전체 전경을, 망원 카메라로 꽃망울과 인물 사진을 찍어 보는 식이다. 같은 장소, 사람이 보다 다채로운 추억으로 기록될 것이다.

각 카메라에 최적화된 부가 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인물 사진 기능을 망원 카메라에 적용하면 전문가용 카메라 못지않은 아름다운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초광각 카메라에는 아찔한 접사 촬영 기능이 숨어 있다. 피사체에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접사 모드가 활성화되며 이때 초광각 카메라가 사용된다. 최대 3-5cm 근접 촬영을 지원한다.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